李, '鄭 상승세' 견제 나서

역 검증·각종 의혹 제기 등 공세 강화

국민중심·민주당과 연대 적극 모색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후보 확정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하자 한나라당이 경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집중 견제에 나서고 있다.

아직 '이명박 대세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국민의 관심이 후보단일화에 몰리면서 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 등이 이뤄진다면 대선 판이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달 말쯤 20% 중반을 넘어선다면 추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선대위에서는 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세론'을 지키는 '현실 안주'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정 후보의 지지율을 묶어둔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동영 후보에 대한 '역 검증'은 물론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서는 한편, 범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호남·충청권의 '서부벨트 연합론'을 구태적 지역주의 발상이라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었는데 후보가 확정되니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며 "결국 다 노무현 정권의 아류"라며 정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후보가 경선 후 노 대통령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황태자'를 자임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 후보가'2 대 8 구도'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식 편 가르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현장 정치'를 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현장중심의 선거를 강조했는데 현장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아침에 회의만 하고 현장에서 피가 안 돈다면 문제"라고 질책, 현장 정치를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국민중심당과 민주당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중심당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대선 막판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민주당 내 '반(反) 이인제 세력'의 흡수에 나서면서 충청과 호남의 지지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명박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에 맞서 우리도 또 다른 방향의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리 학교로… 개성공단으로…

1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를 방문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학생들과 함께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다〈사진 왼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7일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 좋은 사람들 공장에서 속옷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鄭 지지율 15%대로 상승

경선승리 이후 두 자릿수 안착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경선승리 이후 15%대 지지율을 기록, 두 자릿수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신당 대선후보 지명대회 직후인 16일 한국갤럽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 지지율은 16.2%로 직전 조사(9월26일)보다 9.2% 포인트 높아졌다.

또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같은 날 여론조사에서도 정 후보의 지지율은 14.8%로 직전조사인 7.6%보다 7.2% 포인트 올랐다.

앞서 CBS-리얼미터가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은 20.2%로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고, 같은 날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 후보의 지지율이 15.7%로 나타나 지난달 20일 9.4%보다 6.3% 포인트 상승했다.

범여권 후보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가칭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지지율은 문화일보 4.9%(2.4% 포인트 상승), 조선일보 5.3%(1.6% 포인트 상승), 중앙일보 6.4%(3.0% 포인트 상승) 등 5% 전후의 지지율을 보였다. 또 이 후보의 지지율은 문화일보 4.4%(3.0% 포인트 상승), 조선일보 3.0%(1.5% 포인트 상승), 중앙일보 3.4%(1.7% 포인트 상승)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독주체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율은 문화일보 조사에서 56.2%, 조선일보 조사에서 55%로 직전 조사보다 각각 1.4% 포인트씩 상승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46.8%로 직전 조사보다 3.9% 포인트 떨어졌지만 정 후보와는 세 배 가량 격차가 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율은 문화일보 5.2%, 조선일보 3.0%, 중앙일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권 바꿔 서민 잘 살게 해야"

"말 잘하는 세력 대 일 잘하는 세력 대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선후보를 겨냥, "뭐라고 하든 결국은 노무현 정권의 아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신당 후보를 보니까 노 정권에 대한 비판이랄까 이것 때문에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었는데, 후보가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무책임한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국민이 정치권을 보는 불신이 나오고,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을 향해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정권 연장이냐 정권교체냐 하는 양대 세력간 싸움"이라면서 "(또) 말 잘하는 세력과 일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요즘 한나라당이 20%를 위하고, 80%는 위하지 않는 것 처럼 (정 후보가) 말하는데 한나라당은 100%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렇게 가르고,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서민이) 더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서민을 잘 살게 하자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 정권을 바꿔서 서민이 잘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는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서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국민과 약자를 걱정하는 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면서 "상대 당이 '5, 10, 20%' 등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해도, 국민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동영 "개성공단 남북 성장 기반"

'평화 대통령' 이미지 띄우기 나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17일 개성공단을 방문, 한반도 평화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전날 동대문 평화시장을 찾아 '서민 대통령' 이미지 심기에 나선 데 이어 곧바로 개성으로 발길을 옮겨 '평화 대통령' 띄우기에 나선 것.

지난 97년 대선의 민주 대 반(反)민주, 2002년 대선의 개혁 대 반(反) 개혁 구도에 이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양대 화두를 경제와 평화로 규정, 이들 이슈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선명한 대립각을 형성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후보는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확대·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고 개성공단내 입주기업을 둘러본 뒤 선죽교, 고려민속박물관 등 개성시내 '투어' 일정을 이어갔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사업의 부지 조성공사 준공식이 열린 바로 다음날, 통일부 장관 시절 자신이 첫 삽을 떴던 남북경협의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에 획기적 고용 확대의 기회를 제공, 1단계 7만명, 2단계 13만명, 3단계 15만명 등 총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심천 경제특구가 중국 경제도약의 계기였듯 개성은 북한 경제가 국제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인 동시에 남북 동반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 개선과 맞물려 개성을 기술집약적 대규모 산업공단으로 육성, 개성을 거점으로 해주~남포~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여는 한편, 동해선 철도 조기 완공을 통해 금강산~안변~원산~청진~나진·선봉으로 연결되는 환동해경제권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 후보는 당초 경선승리 직후인 17일 미·일·중·러 4강 외교를 떠나려고 준비했었다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면담불발 소동으로 인해 계획을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인제 "빠른 놈이 느린 놈 먹는 시대"

4·19묘지 참배후 대선후보 첫 일정 시작

민주당 이인제 대선후보는 17일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먹는 시대"라며 "다른 정당이 커보이지만 우리는 빠른 속도로 그들을 격파할 수 있다"며 낮은 지지율의 한계를 극복해 민주당 중심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작지만 빠르고 강한 조직을 구축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당이 중심이 돼 일원체제로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고 이제 원점에서 출발해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다"며 "진정한 여론은 4주 안으로 형성되며 제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경쟁하는 일대일 구도로 여론이 형성된다. 현재의 여론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과 4·19묘지를 참배한 뒤 이날 오후 구로디지털 단지를 방문하는 등 당 대선후보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오는 22일 동교동 사저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연설 내용과 목소리가 아주 좋았고 정말 잘 했다. 잘 될 모양이다.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이 후보측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권역별 선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당내에 후보단일화 연구팀을 별도기구로 둬 후보단일화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